설 명절, 사찰서 방역차례…안방선 설특집 즐겨요

불교계 코로나 기간 설명절 맞아 콘텐츠 제공 분주

봉은사 · 화계사 단독차례 강화
인원제한 등 방역 준수 눈길
포교원 샌드아트 사전 선보여
불교계 방송 설날 특집 다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설 연휴 귀성 자제 방침이 나온 가운데 불교계는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을 위한 다례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먼저 가까운 곳에서 방역 속에 간단하게 합동차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교 각계는 사찰 차례 중단 등도 검토했지만, 차례 봉행의 여파가 작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조계사는 22일 오전 8시와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나눠 합동 다례재를 진행한다.

합동다례에 올려진 공양물과 시주금은 동안거 선원 대중공양으로 회향되며 오전 11시에는 황금위패 등이 봉안될 예정이다.

조계사 측은 "스님들께서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희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 기간임을 감안해 행사는 예전과 달리 간소하게 진행되며, 체온 측정과 연락처 기입 등 방역 조치는 한층 강화된다. 종단 방침에 따라 다례재가 봉행되는 전각 내부에는 인원수도 가족 단위로 제한된다.

서울 봉은사는 12일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 등 3회에 걸쳐 법왕루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봉은사의 경우 새롭게 불사한 전각들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의 소규모 다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웅전과 지장전, 영각과 선불당, 미륵전, 전통문화체험관 2관 등 다양한 전각에서 단독차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 국제선센터의 경우 2월 12일 오전 10시 설날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매년 탈북민들과의 합동 설차례도 진행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신도 중심으로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계사 설 다례재 안내화면.

국제선센터 측은 "쌀을 기부해 새터민들에게 10kg씩 나눠주는 나눔 행사 등은 비대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도 2월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적광전에서 불교식 다례로 설보내기 행사를 개최한다. 예년과 달리 화계사 다례는 합동과 단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설 당일에는 안방 명절 맞이를 위한 다양한 불교계 콘텐츠가 제공된다. 먼저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담은 샌드아트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코로나 기간 각 가정에서의 수행 지원을 위한 매뉴얼과 콘텐츠를 제공해오고 있는 포교원은 불교성전의 내용을 다양한 미디어로 가공, 사전 공개해 명절기간 대중화를 모색한다.

BTN불교tv는 설 연휴인 2월 11일과 12일 오후 5시 '한국뮤지컬 악극의 귀환', 2월 11일 오후 7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신년특집대담', 2월 12일 오후 10시와 13일 오전 10시 '천년고찰 백운사에 새 부처님 나투셨네'. 12일 오후 3시 울림톡톡 2021 새로운 시작 1부, 23일 오후 3시 2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대담은 희망과 상생의 등불을 밝힐 조계종단 운영계획을 직접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BBS불교방송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처님의 지혜로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법문과 강연으로 특집을 제작했다.

12일 오후 2시 30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 듣는다'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다. 13일 오후 5시에는 '스님과 신부님의 행복한 명상'으로 각산 스님과 베르나르(서명원) 신부가 출연해 명상을 통한 코로나 블루 치유에 대한 의견을 대중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 밖에 12일 오전 7시, 10시에는 '한국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 특집 보도를 통해 코로나 극복 시기에 불교계가 준비해야 할 부분과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불교계 인사들의 진단을 들어볼 수 있다.

BBS불교방송 라디오는 11일과 12일 오후2시 설날특집 '오후가 좋다'가 '집콕 라디오 콘서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배아현, 금윤아, 금나라 씨 등이 출연한다.

문화재 돌봄 사각지대 문화재로 확대

문화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문화재 돌봄사업 범위가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 ·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87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1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등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상시 · 예방적인 문화재관리 체계다. 지난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 · 도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 · 도로 전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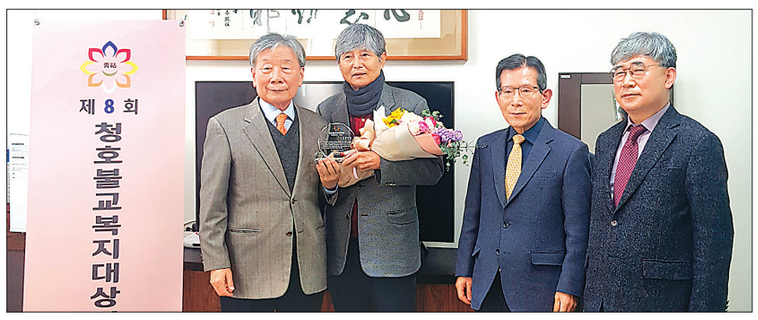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국비 15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보다 539개소가 늘어난 8665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문화재청은 "비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황경환 이사장, 청호불교복지대상 수상

1월 25일 시상식… 〈반야심경 역해〉로 저술부문 영예



청호불교문화원은 1월 25일 제8회 청호불교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욱(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황경환(사단법인 21세기불교포럼 공동이사장), 류충렬(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상임이사), 김세곤(불교복지문화연구소장).

청호불교문화원은 1월 25일 제8회 청호불교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청호불교복지대상 공모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고, 구랍 12월 19일 총 5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황경환 이사장은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김사철, 황경환 공저〉로 학술진흥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는 서기 649년에 현장 스님이 산스크리트원문에서 번역한 한문 반야심경이 아닌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 열반으로 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놓았다.

이와 함께 황경환 공동이사장은 수상금 전액을 21세기불교포럼을 통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월 28일 경주시에 1000만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기자

영등포쪽방촌에 전해진 따뜻한 온정

봉녕사, 떡국떡 · 라면 등 후원물품 직접 전달해 눈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복지 일선에서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했다. 1월 28일, 추위로 얼어붙은 영등포쪽방촌을 훈훈하게 달구어줄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다.

도심에 자리한 승가교육 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 부설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 쪽방도우미 봉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쪽방촌에 후원물품을 전달한 것이다.

봉녕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힘든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와 나누고자 한다"며 후원 취지를 전했다.

봉녕사에서 승보공양을 올리며 봉녕사를 외호하는 신도회 봉사단 '세주공양회' 소속회원들은 기금 모연을 통해 컵라면 1200개, 생수400병, 10kg쌀 30포와 떡국떡 1가마, 국거리용 한돈 100kg 등 약 3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마련했다.


봉녕사 총무 원교 스님이 쪽방촌에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총무 원교 스님과 봉녕사 신도회장, 세주공양회, 여성불자들의 신행 및 봉사 조직인 마야회 신도들은 후원품이 눈에 젖지 않고 무사히 주민들에게 전해 질 수 있도록 눈발을 헤치고, 영등포쪽방촌을 누비며 후원물품을 전했다.

봉녕사 총무 원교 스님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따뜻한 한 끼 나눔을 통해 쪽방촌 주민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주공양회 관음화보살은 "신도 80여 명이 꾸준히 모은 기금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쪽방촌주민들을 위한 대중공양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전달된 후원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각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새해, '문없는 방'서 나를 찾아볼까

스스로를 가두고 오롯이 자신을 찾아가는 무문관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사)행복공장은 "오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6박7일 간 참선 프로그램 '무문관(無門關)'을 행복공장 홍천 수련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작해 11회째를 맞는 무문관 프로그램은 조계종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前 미황사 주지)이 맡고 있다.

무문관 프로그램은 1.5평의 독방에 6박 7일 동안 머물며 혼자서 참선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간화선 수행 책자 '선가귀감'에 대한 금강 스님의 방송강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오리엔테이션이나 나누기 시간은 독방에서 Zoom 화상회의 도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 50만원이고 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은 bit.ly/2021무문관으로 하면 된다.

(02)6084-1016 신성민 기자

世界佛教洗心宗祖 聖皇 無邊大師 禮殿 入寂



성황 무변대사 예전께서 지난 1월 23일 오후 5시 일본 대정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영결식은 1월 29일 오전10시에 충북 옥천군 고리산 황룡사 적광전에서 봉행하고, 황룡사 연화대 다비장에서 다비식을 원만히 봉행 하였습니다.
금반(今般) 저희 성황(聖皇) 무변대사(無邊大師) 예전님의 영결식(永訣式)과 다비식(茶毘式)에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가운데도 근원(遠近)을 불문(不問)하시고 조위(弔慰)와 우의(厚意)를 베풀어 주신 덕은(德恩)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황망중(慌忙中)이오라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관용(寬容)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 문도 일동은 성황 무변대사 예전님의 유훈을 받들어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 세계불교세심종 종단장 위원회 일동

◎ 49재(매주 금요일 오전10시), 막재 3월 12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 황룡사 대웅전에서 봉행합니다.

세계불교세심종 황룡사 :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산로 513 **T.010-8822-2370** (농협 : 405012-51-028429 세계불교세심종)

葬儀委員長 : 대혜
葬 儀 委 員 : 효전, 정보, 정광, 도봉, 보광, 월불, 무심, 도진, 운학, 지천, 도각, 서영길
進行委員長 : 탄월
進 行 委 員 : 대호, 정보, 공전, 가법, 청호, 광법, 대각, 도해, 인봉, 성운, 통융, 적연, 성일, 혜천, 혜일
日 本 委 員 : 高盛順江, 太田路子, 山智栄子, 水美津, 清水大吾, 水薫, 清水稟, 清水大成, 田中博英, 水博 清水満津江, 安達留男,安達美耶子,劉英美, 中山獎,中山紅苑
命薄士委員 : 박영길, 구기주, 고중철, 서유정, 석용현, 이성주, 유재기, 조순희, 최정하, 이영욱
布 敎 委 員 : 최건주, 김청환, 김종온, 우대영, 김옥기, 권오준, 우대준

門中代表 : 무진본
門徒代表 : 범홍
상 좌 : 범홍, 대혜, 정보, 정광, 천심, 선암, 공전, 해인, 탄하, 금하, 덕룡, 대호, 정도, 금곡, 효천, 도운, 혜연, 우봉, 혜월, 도연, 일암, 월불, 지천, 무일, 대종, 청호, 허월, 세심, 무심, 도각, 도봉, 탄오, 명법, 가법, 은광, 관음, 여여, 백성, 세봉, 풍오, 심산, 효명, 풍지, 하천, 덕호, 보혜, 금산, 효광, 효성, 도진, 도성, 운학, 하전, 탄월, 보산
손상좌 : 성운, 적연, 수일, 수지, 대각, 인봉, 혜일, 학성, 보연, 도연, 대연, 일광, 혜광, 통융, 법진, 보경, 혜철, 성천, 성도, 일광, 백초, 지덕, 혜천, 연화, 정각, 동명, 고성, 고성, 송덕, 서운, 홍조, 반야, 강천, 연광, 지덕, 대산, 성원, 수안, 성우, 성문, 일심, 무량, 성오, 원명, 성일, 성원, 성각, 보광, 도명, 지천, 도각, 법경, 법명, 기림, 도광, 임성, 세연, 성수, 성민, 명법, 혜경, 금천

聖皇 無邊大師 禮殿 世界佛教洗心宗 宗團葬 委員會